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과 함께한 대중공양 현장

“정진으로 응공 도시용소서”



“공양을 베푸는 것이 매우 많다. 비구들이 너에게 한 덩어리의 밥만을 먹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 없느니라.”(사분을 제13권)

부처님은 공양의 공덕을 묻는 재가신도에게 이렇게 설하였다. 불가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전(福田)으로 불리는 큰 공덕 중 하나다. 특히 부처님 당시 3개월 안거기간동안 걸식조차 못하는 수행자들에게 올리며 시작된 대중공양은 ‘해제날 갖은 음식을 베풀면 지옥 아귀중생도 구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공덕이 한량없다.

이처럼 불교만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 정월 대보름 해제일을 앞둔 1월 30일 재가신도의 대표단체인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 조계종의 대표적 참선도량인 회양산 봉암사(鳳巖寺)를 찾아 대중공양을 봉행했다.

부처님의 성도가 있게 한 ‘수자타의 공양’처럼 대중공양의 깊은 뜻과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엄금하는 특별선원 봉암사도 문을 열었다.

세속과의 인연이 쉽지 않은 사찰로 수많은 대중들이 일주문 어귀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길, 불교인재개발원 최재중 이사 등 임원진과 신도 50여 명은 새벽같이 준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삼동 기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봉암사 일주문을 지나 겨우내 내린 잔설이 쌓인 회양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웅전에 이르렀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니 조용히 해주시고, 사찰 전경은 담지 말아주세요.”

카메라로 경내를 담으려는 경솔한 기자의 마음을 원주 스님이 조용히 타이른다.

신도일행이 경내를 둘러본 지 얼마 후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나와 선방으로 이동한다. 가지런한 뒷모습에서 행선(行禪)의 향기가 회양산 꼭대기까지 퍼지는 듯하다.

재가자들은 경내를 잠시 둘러보고, 봉암사 계곡을 따라 백운대(白雲臺)에 위치한 마에보살좌상을 참배



특별선원 ‘특별히’ 문 열고 수행복전 일귀

했다. 흰 구름(白雲)처럼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바위 위에서 정성스럽게 참배하는 모습에는 추위가 범접치 못한다.

안양에서 온 구본진(51)씨는 “봉암사에 네 번째 대중공양을 왔다. 수좌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어 대중공양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참배 후 찾은 대웅전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불전함이 임시로 마련돼 있었다. 수행사찰이라 평상시 불전함이 없는 연유다.

부처님 전에는 대중공양 날을 맞아 신도들이 올린 치약, 비누, 소화제, 소금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중앙신도회의 방문에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은 법공양으로 답례했다. 스님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배슬여빙 무연화심 아장여질 무구식념’ (伊膝如水 無戀火心 餓腸如切 無求食念; 무릎이 에어내도 불 그리워 말고, 주린 장자 끊어져도 음식생각 말듯 수행에 전념하라는 뜻) 구절을 인용하며 “경제난으로 봉암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이 힘들지만, 스님들은 어려운면 공부할 더 잘

하니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스님들이 선방에 공양 올리는 것 또한 재가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올 한해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덕담하고,

향상 모든 일에 복이 가득하라는 ‘동지 만복(動止萬福)’이라는 휘호를 선사했다. 법회 후에는 최재중 이사가 보시금을 전달했다. 한 신도는 배웅 나온 한 스님께 예쁜 바람도 선물했다.

봉암사를 처음 찾았다는 황원기 박사(50, 과거사정리의 민족독립조사국 조사관)는 “수행결사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새롭고, 헌 법전 중정 스님을 비롯한 중정 5명과 총무원장 스님 7명 등 오늘날 큰 스님을 배출한 현장에 오니 그 기를 받는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곡절이 있지만, 묵묵히 수행하는 선승들이 있기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던 불교계. 한국 불교계는 사리와 같은 선승들의 정진과 함께, 수행을 뒷받침하는 보살들의 신심이 함께 해 존재할 수 있었다. 재가자들의 실천을 화두로 던지며 회양산의 저녁은 깊어갔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